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살바토레 레벨리, 「예언자 이사야」(1857).
대리석 조각, 로마 미나벨리 광장.

† 오늘의 전례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마르 7,31-37 참조)

아담이 자기 잘못을 아내 탓으로 돌린 이래, 사람은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귀 먹고 말더듬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만의 바벨탑을 쌓다가 단절되어버린 소통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되돌려주십니다.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께서 늘 우리 대화를 듣고 계심을 잊지 맙시다.

제1독서 이사 35,4-7ㄴ

제2독서 야고 2,1-5

복음 마르 7,31-37.

입당송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웁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김용민 안드레아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에파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고 내 사랑을 속삭여 줄 수도 없는 상황을 우리는 병어리 냉가슴 앓는다고 합니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 멀어져만 가는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지옥일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려하고 외로움을 달래줄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연결해주는 것이 대화이고 이를 통한 통교입니다. 그런데 통교를 이룰 수 없다면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귀먹은 반병어리는 바로 통교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가 겪는 단절과 고립으로 인해서 그는 항상 병어리 냉가슴을 앓아야 했고 지옥의 아픔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은 귀먹은 반병어리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단절을 회복시켜주는 구원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들음은 상대를 받아들임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나를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를 받아들여줄 수 있어야 나를 건네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교를 위해서는 우선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우선 열려있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귀가 열리는 것보다 영적으로 열려야 합니다. 육신의 귀가 열려 있으면서도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우리는 소리를 듣지만 마음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닫히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의 닫힌 마음

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남에게 이해시키려 많은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닫아둔 채 내 말을 남에게 전달하려고만 합니다. 서로가 실 새 없이 자기 말만을 하려 하고 도무지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성체 앞에 앉아서도 하느님을 알아들으려 하기보다는 내 말부터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말하는 것에만 길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하려 하고 듣기 위해 마음을 열기에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그러나 들음 없이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고 고통스러운 뿐입니다.

현대는 표현의 시대라고 해서 보다 세련된 표현에 익숙해져 갑니다. 하지만 많이 말한다고 해서 많이 열려 있겠습니까? 열려 있다면 왜 서로의 갈등은 깊어져 가고, 열린 무언을 찾는 일들이 범람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기억 하면 좋겠습니다. “열려라!” 열린다는 것은 귀 기울여 상대방을 듣고 이해하려 하는 태도입니다. 애써서 들으려 할 때 우리는 서로의 귀함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공감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닫혀 외롭지 않고 서로 들어줄 줄 아는 곳은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애쓰고, 서로 들으려 노력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천국일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한마디 말씀을 기억합시다. “열려라!” 아멘. **김용민**

믿음의 길

이정표



박영자 헬레나 | 범어본당

원주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원주 산골마을은 초행이라 막막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요량으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봅니다. “어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망연히 하늘을 쳐다보던 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의지할 스승 없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하는 제자들의 불안이 이해됩니다. 노정(路程)을 궁리하던 중 내비게이션이 생각나 승용차로 출발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세워진 이정표는 목적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안내하고 내비게이션은 붉은 화살로 진행방향을 표시하며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기계에 의지해서 아무 불안감 없이 길을 갔습니다. 의지할 곳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든든한 일입니다.

사람의 삶에도 이정표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인생길이 얼마나 수월할까 하는 생각이 퍼뜩 떠오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길입니다. 어느 길에 뛰어넘을 수 없는 수렁이 가로놓여 있는지, 어디서 가파른 언덕배기를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면 언제나 불안과 갈등이 따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길에도 이정표가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더구나 신앙인에게는 더 확실한 안내자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이고 언제나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세세하게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인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내를 삶의 중심에 두고 활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목적지에 가까이 왔을 때 내비게이션 지시에 약간 못 미치는 300m 전방에서 꺾어들어 길을 잃었습니다. 잠시 당황했습니다. 안내자의 지시를 정확하게 따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요즈음 쉬는 교우가 늘고 있어 교회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냉담자는 길 잃은 양들입니다. 나름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마음을 다잡으면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치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길을 잃는 것은 복음적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 할 바른길을 잃고 세속주의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세상에는 달콤한 것이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쉽고 편한 길에 맞들이다 보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한 번 깊숙이 들어간 길을 고쳐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U턴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길을 정비하고 갔던 길을 되돌아 나옵니다.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임무를 마쳤다는 듯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끝냅니다. 사람의 길에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든든한 의지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씀을 따르는 한 길을 잃고 헤매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일치를 이루는 곳에 평화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보복운전

조재근 마르코 신부 | 경찰사목 담당



평소에는 얌전하고 점잖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운전으로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요리조리 재빠르게 차선변경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차량들이 눈에 띄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양보 운전을 하면 참으로 좋으련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깜빡이를 켜고 내 앞에 들어오려는 차가 있으면 아량을 베풀기 보다는 오히려 속도를 높여 끼어

들지 못하게 앞차와의 간격을 좁혀버립니다. 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선변경을 했음에도 뒤에서 여지없이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비추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지켜야 할 선(線)을 넘어서서 보복운전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뉴스로 보도됩니다. 보복운전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됨에 따라 경찰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정도입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흥기로 사용한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점점 각박해져가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저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요즘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일분일초를 빨리 가려는 조급한 마음들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작은 일에 쉽게 화가 나고, 분노조절능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건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마음 한 곳에는 ‘당한 만큼 되갚아준다’는 보복심리가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마태 5,38-39)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사람답게 양보와 배려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당한 만큼 되갚아주기보다는 사랑을 받은 만큼 베풀고 나누는 복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김민**

하느님은 악(惡)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하느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악하다!”

한 교수가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느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한 학생이 용감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일 하느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악도 존재함으로 하느님은 악도 창조한 것이다. 이것이 하느님이 악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학생은 이 말에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학생들에게 하느님을 믿는 신앙은 미신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며 으쓱해 했습니다.

그 때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잠시 만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추위가 존재하나요?” “무슨

질문이 그런가?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넨 한 번도 추위 본 적이 없는가?” “사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물리학 법칙들에 따르면 추위란 실제로는 열이 없는 상태예요. 교수님 그렇다면 어둠은 존재하나요?” “당연히 존재하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틀렸어요. 어둠 또한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은 빛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예요. 빛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어둠은 아니예요. 마찬가지로 악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과 추위와 같아요. 하느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하느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예요.”

교수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 (1879~1955년) 이었습니다. **필독**

금주의 성인

9월 6일	성 레토(주교, 순교자, 아프리카, 484년경), 성녀 베가(수녀, 7세기) 성녀 베아타(순교자, 상스, 273년), 성 즈카르야(구약인물, 예언자, BC 6세기)
9월 7일	복자 랄프 코비(순교자, 1598~1644년), 성녀 레지나(동정 순교자, 오팅, 300년경) 성 에보르시오(주교, 오를레앙, 4세기)
9월 8일	성 디시보드(주교, 빙엔, 700년경), 성 세르지오 1세(교황, 701년) 성 에우세비오(순교자, 가자, 362년경), 성 하드리아노(순교자, 니코메디아, 304년경) 성 코르비니아노(주교, 선교사, 프라이징, 680~730년)
9월 9일	성 고르고니오(순교자, 니코메디아, 303년), 복녀 세라피나 스포르차(과부, 1432~1478년) 성 이사악(수사, 아르메니아, 439년), 성 치아란(신부, 수도원장, 클론맥노이즈, 516~556년)
9월 10일	성 니콜라오(은수자, 증거자, 톨렌티노, 1245~1305년), 성녀 메노도라(순교자, 304년) 성녀 님포도라(동정 순교자, 304년), 성 살비오(주교, 알비, 584년) 성녀 풀체리아 아우구스타(동정녀, 황후, 399~453년)
9월 11일	성 다니엘(수도원장, 주교, 뱅거, 584년), 성녀 테오도라(통회자, 은수자, 알렉산드리아) 성 프로토(하인, 순교자, 로마, 257년), 성 파프누시오(주교, 증거자, 테베, 350년경)
9월 12일	성 귀도(평신도, 안더레흐트, 1012년), 성 아일베(주교, 엠리, 6세기)

■ 학교법인 선목학원·해은학원 신임 교장·교감 임명장 수여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8월 25일(화) 오전 11시 교구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학교법인 선목학원·해은학원 신임 교장·교감 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셨다. 대주교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을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여 학교가 목표하는 일들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셨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월간 <빛>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36주간, 2015. 9. 6~9.12.>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예레51-52장	애가1-2장	3-5장	바룩1-3장	4-6장	예제1-6장	7-11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애가』

- 하느님의 두 가지 속성 곧, **공정**(당신 백성의 불충과 반역에 대한 벌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도록 하셨다.)과 **자애**(당신 백성을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정해진 징벌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에 대해 고백하고 있다.

『바룩서』

- 유배는 하느님과 그분의 계약을 다시 기억하고 죄악에서 돌아서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 계기라는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 토라가 지혜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인격화하여 자식들마저 빼앗긴 홀어머니로 표현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홀어머니를 위로하실 것이다.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우리도 순교자와 같은 삶을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9월 7일(월) 11:00 성동성당	1대리구 9월 성소후원회 미사는 없습니다.	
밀알빛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9월 7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9월 7일(월) 19:30 꾸르실로 교육관 내 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7일(월) 11:00 죽도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9월 12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9월 한티 일일 피정

일시: 9.14(월) 10:00~17:00

주제: 식별과 축복

지도: 권민자 수녀, 여영환 신부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예수회 성소 모임

예수회원의 정체성(죄인이면서 예수의 벗)

일시: 9.12(토) 14:00

장소: 관구본부(서강대학교 옆)

문의: (010)6245-1608

<http://cafe.daum.net/vocsj>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원하는 시간에

장소: 원하는 장소에서

문의: 조대운 신부, (010)3777-4688

제12차 영성 무료 치유 대피정

기간: 9.11(금) 22:00~13(일) 16:00

준비물: 세면, 필기, 미사도구 준비

문의: 부산교구 성령봉사회 영성의집

신청: (055)382-9465~6

산내 치유 피정

산내 치유 피정: 9.15(화)~16(수)

시니어 피정: 9.22(화)~23(수)

장소: 효령 하늘집(선착순 10명)

문의: 동천성당, 326-5004

ME를 체험한 부부를 위한 17차 MR피정

ME주말의 뜨거운 감동을 다시 드립니다.

기간: 10.3(토)~4(일), 한티피정의집

문의: 대구 ME, 983-0521

한국순교복자수도회 제주 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평화,

성지순례, 올레길, 오름트레킹, 역사탐방

기간: 9.17~19 / 10.1~3 / 10.11~13

10.21~23 / 10.26~28 / 11.5~7

문의: (02)773-1463

수도원에서의 문학 치유 피정

기간: 9.18(금) 15:00~20(일) 13:00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피정의집

강사: 구자명(작가), 오윤교고진석 신부

김익규(화가) / 1인 1실, 19만 원

문의: (054)971-0722

교육 | 모집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

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24평형 계약중, 35평형 마감

각종 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장소: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18회 대학생 해외 영어연수-해외봉사

기간: 3차 10.3(토), 8주 이상

국가: 필리핀, 캐나다

특징: 영어연수, 해외봉사 인증서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김길수 교수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내용: 일본 4박 5일, 58만 원

문의: 천주교 사도직회(팔로티회)

(010)4239-1929

화요일아침예술학교 2016 신입생 모집

학력인정 대안 여자고등학교(서울대학교

소속) 3년 과정 학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

대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중학교

졸업예정자, 미술(회화) 지원자 우대

문의: (031)832-9988, 홈페이지 참조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양업고등학교는 우리나라 가톨릭 최초

의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기간: 9.14(월)~22(화)

문의: (043)260-5076~8

<http://yangeob.hs.kr>

“아름다운 건강의 약속”
더 편한 내과가 함께 합니다.

더 편한 내과

부설 : 건강검진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월배로 470
군청빌딩 3층 (구 달성군청)
원장 윤석진 (야고보) ☎ 053)651-7585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NAVER 메디펫동물병원 검색
각종 수술 전문 중증 노령견 전문
메디펫동물병원
원장 임대진 (미카엘)
병원 761-8875 TBC 맞은편

골동품 · 민속품
고가 매입, 문의 환영

문승갤러리 김대운 (요셉)
위치 : 건들바위 네거리(무료감정)
☎ 053)474-3050

전통한복의 명가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 혼수/예단/수의 · 한산모시 전문점
중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상가 115호
☎ (053)421-2827/421-2828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네스)

Yi Sang Do Neurology Clinic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한 뇌전증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효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행사 | 모임

교구 도보성지 순례

일시: 9.19(토) 10:00 집결 / 14:00
미사 및 '답게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
코스: 선원사 앞 공영주차장~한티성지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7

대구평화방송 개국19주년 기념음악회

일시: 9.11(금) 19:30, 수성아트피아
출연: 가톨릭팔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동우, 웅산, 김동섭, 김은주
가톨릭연합합창단 / 2만 원
예매: 티켓링크, 251-2610

노인의 날 행사

일시: 10.3(토) 11:00~16:00
장소: 성모당 일대
대상: 본당 65세 이상 어르신
회비: 1천 원(중식 제공)
문의: 교구 노인사목담당, 250-3077

제23회 순교자현양 주일학교 학생 백일장

일시: 9.20(일) 14:00
마감: 9.13(일) 17:00
문의: 관덕정, 254-0151

2박 3일 성령세미나

기간: 9.11(금) 13:00~13(일) 17: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일막피정의집)
신청: 12만 원 / (054)954-0951
1일 피정: 9.19(토) 13:00~18: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평리동)

교육 | 모집

새빛학교 기초영어, 한문반 모집

영어개강: 9.10(목) 13:00, 주 2회
한문개강: 9.15(화) 15:00, 주 1회
문의: 476-3100(1호선 교대역)

9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9.12(토) 10:00
장소: 남산동 신학대학
주제: 나날의 삶을 주님과 함께
강사: 이유남(도미니카) 교수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프란치스칸 영성학교 1학기 모집

일시: 9.19(토) 14:00~17:00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주제: 인간은 왜 신을 찾는가?
강사: 김찬선(레오나르도) 수사 신부
문의: 재속프란치스코회, 632-9800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가곡·성가교실, 어린이성악, 통기타,
우쿨렐레, 오카리나, 플룻, 바이올린,
성가반주법, 캘리그래피, POP, 민요,
성인생활영어회화, 초등영어회화·문법
문의: 476-6211(지하철 1호선 교대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17차 신규교육 모집

기간: 9.14(월)~15(화)
입금선착순 30명 / 3만 원

대구은행: 508-10-349316-9(장혜자)
문의: 대구파티마병원
940-7515 / 940-7517(입금 후 전화)

대구시립희망원 치과진료 봉사자 모집

일시: 매주 월~금요일 중 가능한 시간
내용: 희망원 생활인 치료, 보철진료
대상: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631-5985 / (010)3810-9859

국비지원 무시험 국가자격 장례지도사

주간반 40명: 개강 10.10~종강 12.5
교육: 월~금 10:00~16:30(2개월 단기)
대상: 65세 미만 / 학력, 남녀 무관
특전: 교육비 국비지원(식비, 차비 추가)
문의: 대가대장례지도사교육원, 555-4404

채용 | 안내

요양원 어르신 모집, 요양복지사 채용

입주: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
받은 여성
채용: 요양보호사 0명
문의: 파티마홈(베네딕도수녀회 운영)
324-1188 / (010)8595-1186

전인병원 9. 10(목) 개원

진료: 양방·한방 통합의료를 통한
면역암치료 / 암성·만성 통증치료
후원: 대구광역시, 보건복지부, 대구
가톨릭대의료원, 대구한의대의료원
원장: 손기철 신부, 670-6000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4790-3888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주)한투어
한투어 생지순례전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성모발현지 외 다수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임기출입/성장(식욕부진·수면장애)/아토피/아노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사
동국대학의학과 외래교수 **김 성 철(비오)**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메디타워 4F

작고 행복한 결혼식
하우스 웨딩 전문
메종 보네르
서 현 희 (헬레나)
☎ 053)421-3447
http://www.maison-bonheur.co.kr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건물청소(입주, I·T청소(소독), 연건관리 등)
시설경비, 방역소독, 저수조청소(소독)
소방시설종합관리, 주거환경개선(집수리)
(주)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http://www.hbdaegu.co.kr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 방과후 학교운영)
후원전화 070-8911-6033